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산란실용계 생산 감축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분양중단

산란계 병아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부화장들은 소비감소로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용계 농장에 병아리 분양을 중단하여 생산조절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종란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란을 중단하게 되며, 병아리는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분양을 동시에 중단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병아리 생산이 중단되면 전년 판매수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의 초생추 입식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나 감산 기대효과를 염두하여 7월에 입식이 증가하면 당초 목적은 반감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 우수성 홍보

지하철에 광고 실시

채란업계는 계란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본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조금사업을 통한 지하철 광고가 지난 5월 27일부터 4개월간 서울의 지하철 2·3·5호선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채란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우수성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홍보비용은 우선적으로 각 분회별로 100만원씩 자조금을 납부하여 시행하면서 전 채란인의 협조를 얻어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화장 및 양계축협, 업체, 단체 등에서도 협찬을 하기로 함에 따라 계란 우수성 홍보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로 인해 계란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는 계란 비수기인 여름철에 광고를 하여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란농가들의 고

통을 경감시키고자 광고도안을 제작, 의뢰하여 확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6월 14일부터 농림부 이관**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이후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가 지난 12월 13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또한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어 축산물 생산부터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림부가 업무를 관장케 됨으로써 축산식품의 질적 수준향상이 기대된다.

**주말비 양계산물 소비에 영향
연초부터 19주동안 주말에 비**

기상청 관계자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금년초부터 5월까지 21주동안 주말과 휴일에 비가 내린 것은 19주나 되어 주말과 휴일에 비가 내리는 것과 날씨가 맑은 것과 어떤 것이 양계산물 소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닭고기와 계란은 소비에 있어 기온을 중심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과 같이 주말, 또는 휴일에 비가 내리므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다.

다만 유통업자의 말을 빌리자면 양계산물은 기온이 높고 날씨가 흐려 도심에 사람이 많아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 금년에는 날씨가 소비에 그런대로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금티푸스 발병을 급증
난가하락으로 관심 낮아져 피해 커**

지난 5월말부터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각종 닭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진청도 이미 전염성기관지염과 닭뇌척수염에 대한 발생주의보를 5월 13일자로 발표하였다. 세균이 원인균인 가금티푸스(SG)는 산란계 농장에 집중적으로 발병하여 높은 폐사와 산란저하를 일으켜 농가를 황폐화시키게 되며, 한 번 발병되면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연속 발병이 되고 있다. 다시 가금티푸스 발생이 본격 시작되자 검증되지 않은 첨가제나 항생제를 마치 가금티푸스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농가만 골탕먹인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마사회 농림부 환원작업 착수
농·축관련 56개단체 결의대회**

농·축산인들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 결의대회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키 위해 청원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검역소와 수의연 통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명칭 확정**

농림부는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명칭을 지난 14일 관계관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였다.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도 통합하고 통합명칭을 농업정보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하였다. **양계**